

# 대학생의 페티시 패션소재에 대한 선호도와 감성

## University Students' Preference and Sensibility to Fetish Fabrics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박사과정 김여원

졸업 박유라 · 이수연

교수 최종명\*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Yeo Won Kim

After Graduation : Yoo Ra Park · Su Youn Lee

Professor : Jong Myoung Choi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udents' preference and the sensibility to fetish fabrics such as leather, fur, velvet, suade, and corduroy, and to analyz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of the university studen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24 university students (male students 52.8%, female students 47.2%) in the Cheongju area, Korea. Frequency, t-test, F-test and factor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ubjects preferred velvet, leather and suede fabrics, while they did not prefer corduroy and fur fabrics. 2) Their feelings to fetish fabrics were respective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kind of fabrics. 3)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ender in the preference and the sensibility to fetish fabrics. 4) They evaluated that velvet fabrics could express a variety of sensibilities. 5) They considered that fabrics as velvet, leather, and fur have more noble and fanciful images than corduroy.

Key Words : fetish, fashion fabrics, preference, sensibility, gender

## I. 서론

오늘날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대다수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은 풍요롭고 아름다우며 여유 있는 감성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다. 패션스타일이나 소재에서도 이러한 감성 중시 경향이 반영되고 있어 패션상품은 변화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개인의 감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소재는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해도 소재의 텍스처에 따라 패션상품의 느낌이나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소재는 패션을 리드하는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창조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김정화 외, 2007). 따라서 패션업체에서는

상품기획에 맞는 의복을 생산하기 위해서 적합한 소재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선택 또는 개발하는 작업인 소재 기획을 하게 된다. 이때 먼저 패션테마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소재를 선정하는 데, 이는 결국 소재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작업인 것이다(신혜원, 이정순, 2002). 즉 패션상품에서 심미성과 감성적인 측면은 소비자들에게 있어 의복의 선택과 구매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므로(Eckman, 1990), 소재 이미지를 반영한 패션상품은 의복 이미지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패션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소재에 따라 의류제품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세분화된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소재에 대한 감성과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패션소재의 이미지와 감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복 텍스타일 디자인

\* Corresponding author: Jong Myoung Choi

Tel: (043) 261-2791 Fax: (043) 274-2792

E-mail: jmchoi@cbnu.ac.kr

과 관련한 감성(나영주, 권오경, 2000), 의복재질의 시각적, 촉각적 감성 연구(오혜순, 2000), 의류소재의 이미지 분류(이윤숙 외, 2001) 및 정 섬유소재에 대한 감성을 평가한 연구로 면섬유 소재 감성(이정순, 신혜원, 2003)과 양모소재 감성(정상무, 나영주, 2003)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종교적, 인류학적 의미로서 고대의 목가제품이나 우상을 숭배했던 원시인들이 비이성적인 숭배를 의미하는 페티시즘(fetishism)은 의복을 인간 본연의 욕구를 시각적으로 충족시켜 주었던 매개물인 동시에 욕망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인지되어 왔는데, 19세기 말 억압적인 빅토리아 성도덕과 세기말 풍조, 산업 자본주의 영향으로 성의 일탈행동들이 급속하게 대중문화 속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페티시즘은 20세기에 들어와 하이패션의 중심테마로 등장하기 이르렀으며, 사회적 성(gender)을 본연의 성(sex)으로 인지하는 한 수단으로 현대사회에 나타나게 되었다(이의정, 양숙희, 1999; 변미연 외, 2006). 패션에서의 페티시즘은 이성의 복식이나 특정아이템에 성적 환상을 부여하고 관능적으로 연출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페티시 감성표현은 현대패션에서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클라우드 몬타나(Claud Montana) 등을 비롯한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재탄생되어 현대인의 본연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변미연 외, 2006). 페티시즘과 패션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블랙색상(이민경, 한명숙, 1999)과 언더웨어(이의정, 양숙희, 1999) 및 콜셋과 슈즈(이의정, 양숙희, 1997)를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가 있다. 페티시 패션소재로는 쉬폰, 레이스, 망사 등의 시스루 소재, 벨벳, 모피, 실크 등의 특유의 고아한 광택소재, 가죽과 고무 등의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광택소재, 스웨이드와 코듀로이 등의 부드러운 촉감 소재 등을 들 수 있다(이민경, 한명숙, 1999; 변미연 외, 2006). 그런데, 페티시 패션소재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 연구(권미정, 2000)는 있으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연상하고 있는 소재 감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을과 겨울철 재킷과 코트 및 패션술 등의 소재로 주로 사용되는 소재인 모피, 가죽, 스웨이드, 벨벳, 코듀로이 등의 페티시 소재를 선정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의복에 관심이 많고 패션 마케팅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페티시 패션소재의 선호도와 감성을 조사하여 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대학생들 목표 소비자로서 재킷과 코트를 제작하는 패션업체의 소재기획시 감성을 고려한 제품개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페티시즘

사전적 의미의 페티시(fetish)는 마술적 매력의 의미로서 조작용, 인공물, 외관과의 표식을 위한 모든 노력을 뜻하며(이민경, 한명숙, 1999), 부적의 의미를 지닌 포르투갈어의 페티티소(feitico)에서 파생된 것으로 어떤 물품이나 신체 부위를 통해 성적 쾌락을 추구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일컬으며, 나아가서는 이성의 의복이나 장신구 따위로 성적 만족을 얻는 일을 가리킨다고 하였다(권미정, 2000).

페티시즘은 종교적, 인류학적 의미로서 고대의 목가제품이나 우상을 숭배했던 원시인들이 비이성적인 숭배를 의미한다(변미연 외, 2006). 페티시즘은 의복을 인간 본연의 욕구를 시각적으로 충족시켜 주었던 매개물인 동시에 욕망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인지되어 왔다. 그러나 19세기 말 억압적인 빅토리아 성도덕과 세기말 풍조, 산업 자본주의 영향으로 성의 일탈행동들이 급속하게 대중문화 속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페티시즘은 20세기에 들어와 하이패션의 중심테마로 등장하기 이르렀으며, 사회적 성(gender)을 본연의 성(sex)으로 인지하는 한 수단으로 현대사회에 나타나게 되었다(이의정, 양숙희, 1999; 변미연 외, 2006).

패션에서의 페티시즘은 이성의 복식이나 특정 아이템에 성적 환상을 부여하고 관능적으로 연출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성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의 저항과 일탈, 성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유희적 성향을 띠기도 한다(송명진, 채금석, 2001). 주요 페티시 대상으로 선택되는 것에는 발, 머리카락, 피부, 허리, 가슴과 같은 신체적 특징, 하이힐, 코르셋, 페티코트와 같은 특정 아이템 또는 모피, 실크, 벨벳, 고무, 가죽 등의 소재가 있다(변미연 외, 2006). 이처럼 성을 하나의 코드로 인식하는 페티시즘이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성도착이나 성적 하위문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페티시즘은 대중문화를 통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페티시한 이미지가 스타일 요소로서 대중패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이의정, 양숙희, 1997). 현대 패션에서 페티시 감성표현은 장 폴 고티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클라우드 몬타나 등을 비롯한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재탄생되어 현대인의 본연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변미연 외, 2006).

2. 패션소재 선호도와 감성

최근 패션소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소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물성 등과 같은 기능적 차원에 촉감과 자연적인 느낌 등 심리적인 차원이 추가된 감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있어 패션상품의 심미성과 감성적인 차원은 의복의 선택과 구매에 중요한 측면이므로(Eckman, 1990), 고감성 패션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재 이미지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획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패션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소재에 따라 의류제품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세분화된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소재에 대한 감성과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패션소재의 이미지와 감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복 텍스타일 디자인에 대해서 컨트리-소피스티케이트, 엘레강스-스포티, 로맨틱-매니쉬, 컨저버티브-컨템포러리 등의 8개 감성축을 사용하였으며(나영주, 권오경, 2000), 의복재질의 시각적 감성요인의 구성요인을 고급감, 표면감, 현시감, 경량감, 온냉감의 5개 요인으로, 시각적·촉각적 감성의 구성요인으로는 감성적 특성, 감각적 특성, 표면적 특성의 세 요인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오해순, 2000). 또한 소재의 감성을 러프, 클린, 드라이, 웨트, 하드, 소프트, 라이트, 헤비 의 8개 감각으로 분류하거나(김정규, 박정희, 2001), 의류소재의 이미지를 내추럴, 이노센트, 로맨틱, 에스닉, 차일디쉬, 캐주얼, 클래식, 모던, 테크니컬의 9개로 분류하기도 하였다(이윤숙 외, 2001). 한편, 특정 섬유소재에 대한 감성을 평가한 것으로 면직물을 대상으로 감성을 평가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분류하였으며(이정순, 신혜원, 2003), 양모의 종류에 따른 태와 감성을 평가하고 재킷 스타일의 종류에 따른 감성의 차이를 분석하기도 하였다(정상무, 나영주, 2003).

이처럼 패션의 상품가치는 실루엣이나 디자인 뿐 아니라 소재의 색상이나 무늬 등의 심미적인 요소와 촉감 등의 감성적인 요소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같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소재의 텍스처에 따라 표현되는 이미지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페티시 소재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촉각적 감성은 현대패션에서 시각적으로 페티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페티시 패션소재로는 쉬폰, 레이스, 망사 등의 시스루 소재, 벨벳, 모피, 실크 등의 특유의 고아한 광택소재, 가죽과 고무 등의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광택소재, 스웨이드와 코듀로이 등의 부드러운 촉감 소재 등을 들 수 있다(이민경, 한명숙, 1999; 변미연 외, 2006). 그런데, 페티시 패션소재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 연구(권미정, 2000)는 있으나, 소비자들이 일반

적으로 연상하고 있는 소재 감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을과 겨울철 재킷과 코트 및 패션 숄 등의 소재로 주로 사용되는 소재인 모피, 가죽, 스웨이드, 벨벳, 코듀로이 등의 페티시 소재에 대한 선호도와 감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청주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중에서 가죽, 모피, 벨벳, 스웨이드, 코듀로이 소재 등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재로 만들어진 패션아이템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324명이었다. 남학생이 171명, 여학생이 153명이었으며, 고학년(64.5%)이 저학년(35.5%)보다 많았고, 자연공학계열(46.0%)이 타 계열보다 많았으며,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7%이었다.

조사대상자인 대학생의 천연과 인조소재를 포함하여 페티시 소재로 된 패션상품의 소유정도를 조사한 결과, 코듀로이 소재의 패션아이템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벨벳, 스웨이드 소재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템별로 살펴보면 재킷/점퍼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재는 가죽, 벨벳, 코듀로이 순이었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가죽과 코듀로이 재킷/점퍼를, 여학생은 벨벳과 모피소재의 재킷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의 특성

구분		빈도	%
성	남학생	171	52.8
	여학생	153	47.2
학년	1-2학년	115	35.5
	3-4학년	209	64.5
전공	인문사회계열	109	33.7
	자연공학계열	149	46.0
	기타	66	20.3
이성친구	있음	119	36.7
	없음	205	63.3
소재 소유정도	가죽(천연, 인조)	146	45.0
	모피(천연, 인조)	110	33.9
	벨벳	156	48.1
	스웨이드(천연, 인조)	204	69.9
	코듀로이	247	76.2

본 연구는 2007년 6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설문을 작성하여 8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설문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권미정, 2000; 김희숙, 2001; 신혜원, 이정순, 2002; 이순임, 김재숙, 2006)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한 설문을 가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설문을 보완하여 최종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선다형인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 리커트형의 페티시 소재에 대한 선호도 및 감성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감성평가 용어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15개 평가용어를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미가 중복된다고 판단된 4개 평가용어를 제외한 최종 11개 감성평가용어를 사용하였다. 소재에 대한 선호도와 감성평가 용어는 7점 리커트 형으로 구성되었는데, 아주 선호하거나 해당 평가 용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7점으로, 아주 싫어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1점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 3. 자료분석

조사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항별 특성에 따라 빈도(백분율)와 평균(표준편차)을 산출하였고, 성에 따른 소재 선호도와 감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소재별 감성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분석으로 Duncan 검증을 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페티시 패션소재에 대한 선호도

페티시 패션소재에 대한 대학생들의 선호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하여 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은 벨벳, 가죽, 스웨이드 소재에 대해서는 선호하고 있으나(평균 4점 이상),

<표 2> 성별 페티시 패션 소재에 대한 선호도

소재	남학생(M)	여학생(M)	전체(M)	t 값
가죽	4.25	4.33	4.29	-0.44
모피	3.22	3.73	3.46	-3.25***
벨벳	4.34	4.65	4.49	-2.14*
스웨이드	3.93	4.23	4.07	-2.08*
코듀로이	3.61	3.80	3.70	-1.38

\*p<.05, \*\*\*p<.001.

코듀로이와 모피 소재에 대해서는 선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4점 미만). 특히 벨벳에 대한 선호도(평균 4.49)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벨벳소재가 주는 유연한 감촉과 깊이 있는 색조 및 최근의 로맨틱한 패션 트렌드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감성적인 특성과 고부가가치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특유의 광택, 우수한 착용감 등을 갖는 벨벳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성에 따른 소재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피, 벨벳, 스웨이드 소재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들 소재를 더욱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피, 벨벳, 스웨이드 소재가 남성복보다 여성복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 2. 페티시 패션소재에 대한 감성 평가

### 1) 패션소재별 감성 비교

#### (1) 가죽소재

가죽소재에 대한 감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대학생은 가죽소재에 대하여 정열적이며 고급스럽고 화려하며 멋있고 섹시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우아하지는 않다고 평가하였다. 즉 가죽소재는 감성평가 용어 11개 중에서 우아한 감성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4점 이상으로 평가하여 대학생 집단에서 감성이 중요시되는 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죽의류 구매에 있어서 감성에 의한 평가를 중요시한다는 연구결과(오윤정, 이영선, 2004)를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감성 평가는 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가죽소재가 더 정열적이고 모던하다고 평가한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더 우아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로써 대학생들에게 있어 가죽소재는 정열적, 화려한, 섹시한 등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페티시한 패션 감성을 표현하는 소재로 인식되고 있

<표 3> 가족소재에 대한 감성 비교

구분	남학생(M)	여학생(M)	전체(M)	t-값
정열적인	5.18	5.67	5.41	-2.83**
고급스러운	5.20	5.15	5.17	0.34
화려한	5.02	5.16	5.09	-0.94
멋있는	4.95	5.11	5.03	-0.86
섹시한	4.79	5.14	4.96	-1.78
개성적인	4.75	4.99	4.86	-1.33
모던한	4.51	5.05	4.77	-3.11**
세련된	4.72	4.54	4.63	1.04
매력적인	4.31	4.60	4.45	0.33
신비로운	4.25	4.48	4.36	-1.38
우아한	3.60	3.07	3.33	2.99**

\*\* p<.01.

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2) 모피소재

모피소재에 대한 감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은 모피소재에 대하여 고급스럽고 화려하며 우아하고 신비롭다고 평가하였으나, 모던하지는 않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특히 천연의 모피소재인 경우 고가이므로 대학생 집단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패션소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모피소재에 대한 감성 평가는 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피소재가 더 화려하고 우아하며 정열적이고 개성적이며 섹시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모피소재는 표면에서 느껴지는 촉감의 특징과 모피소재 특유의 고아한 광택이 연출

<표 4> 모피소재에 대한 감성 비교

구분	남학생(M)	여학생(M)	전체(M)	t-값
고급스러운	5.67	5.84	5.75	-1.09
화려한	5.43	6.06	5.74	-3.96***
우아한	4.57	4.96	4.76	-1.96*
신비한	4.54	4.84	4.69	-1.84
매력적인	4.43	4.66	4.54	-1.18
정열적인	4.19	4.85	4.50	-3.43***
멋있는	4.33	4.58	4.45	-1.25
세련된	4.54	4.30	4.43	1.25
개성적인	4.18	4.68	4.41	-2.57**
섹시한	3.71	4.55	4.13	-4.02***
모던한	3.85	3.65	3.75	1.16

\*\*\* p<.001.

하는 분위기에 따라 훨씬 더 패티시한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권미정, 2000)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벨벳소재

남녀 대학생의 벨벳 소재에 대한 감성을 평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학생은 벨벳소재에 대하여 멋있고 매력적이며 우아하고 고급스러우며 세련되고 화려하다는 등 11개 평가 용어 모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벨벳소재의 표면에 있는 침모의 존재가 광택과 색상을 다르게 보이는 효과를 창출하여 패션에 풍부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므로 착용자를 더욱 신비스럽게 보이도록 하며, 털이 주는 표면의 촉감과 관련되어 신체 친화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패티시즘의 주요한 요소로 이용되는 것(권미정, 2000)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 하겠다. 또한 벨벳소재는 자연스러운 신체를 나타내며 움직임에 따라 표면의 빛과 색채가 변하는 화려함과 낭만을 표현해 주므로 엘레강스와 노스텔지아 이미지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정소영, 조규화, 1998). 따라서 벨벳소재는 섹시한 이미지와 세련되고 우아한 감성 등을 느낄 수 있어 양면성 표현이 가능한 패션 소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벨벳에 대한 감성평가는 부분적으로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벨벳소재가 더 멋있고 매력적이며 우아하고 화려하며 섹시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벨벳소재에서 패티시한 소재 감성은 여학생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벨벳소재에 대한 감성 비교

구분	남학생(M)	여학생(M)	전체(M)	t-값
멋있는	4.98	5.27	5.12	-1.73*
매력적인	4.75	5.41	5.08	-4.28***
우아한	4.74	5.31	5.02	-4.01***
고급스러운	4.80	5.02	4.91	-1.14
세련된	4.80	4.95	4.87	-0.92
화려한	4.61	5.10	4.85	-3.33***
개성적인	4.71	4.69	4.70	0.08
모던한	4.64	4.70	4.67	-0.34
신비한	4.45	4.57	4.51	-0.72
섹시한	4.12	4.61	4.36	-2.94**
정열적인	4.23	4.24	4.23	-0.37

\*p<.05, \*\*\*p<.001.

(4) 스웨이드소재

스웨이드 소재에 대한 감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대학생들은 스웨이드 소재에 대하여 고급스러

&lt;표 6&gt; 스웨이드소재에 대한 감성 비교

구분	남학생(M)	여학생(M)	전체(M)	t-값
고급스러운	4.80	4.69	4.74	0.70
개성적인	4.49	4.73	4.60	-1.57
멋있는	4.47	4.71	4.59	-1.54
매력적인	4.31	4.60	4.45	0.41
모던한	4.24	4.66	4.44	-2.77**
세련된	4.44	4.35	4.40	0.65
화려한	4.32	4.29	4.30	0.18
신비한	4.17	4.24	4.20	-0.49
정열적인	4.06	3.88	3.98	1.17
우아한	3.99	3.63	3.64	2.20*
섹시한	3.57	3.50	3.53	0.41

\* p&lt;.05.

우며 개성적이고 멋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우아하거나 섹시하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는 스웨이드 소재가 기모된 표면섬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지만, 반면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광택에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스웨이드 소재에 대한 감성은 세 가지 평가 용어에서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웨이드 소재가 더 매력적이고 모던하지만 우아하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코듀로이 소재

코듀로이 소재에 대한 감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대학생은 코듀로이 소재가 모던한 감성을 가지지만 우아하지도 화려하지도 섹시하지도 않다고 평가하였다. 즉 모던한 감성을 제외한 다른 감성에 대해서는 부

&lt;표 7&gt; 코듀로이소재에 대한 감성 비교

구분	남학생(M)	여학생(M)	전체(M)	t-값
모던한	3.96	4.37	4.15	-2.03*
개성적인	3.85	3.78	3.82	0.37
멋있는	3.44	3.80	3.61	-1.94
매력적인	3.48	3.78	3.62	-1.74
고급스러운	2.98	2.84	2.91	0.85
세련된	2.89	2.77	2.84	0.73
신비한	2.92	2.69	2.81	-0.49
우아한	2.95	2.58	2.77	2.22*
화려한	2.93	2.49	2.72	2.75**
정열적인	2.84	2.58	2.72	1.65
섹시한	2.72	2.60	2.67	0.75

\* p&lt;.05.

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코듀로이 소재가 보온성이 좋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실용적이고 가격이 저렴하여 대표적인 이지 캐주얼 소재로 대학생들이 착용하는 다양한 아이템에 널리 이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감성 평가는 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코듀로이 소재가 더 모던한 감성을 준다고 평가한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우아하고 화려하다고 평가하였다. 즉 여학생이 코듀로이 소재가 더 실용적인 소재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듀로이는 벨벳과 같은 첨모조직에 의한 직물특성은 동일하다고 해도 코듀로이는 주로 면 섬유로 제조되고 벨벳은 실크, 레이온 등의 필라멘트 섬유로 제조되어 광택과 촉감의 차이가 있어 감성평가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코듀로이 소재도 실크나 레이온 등의 필라멘트사로 제조될 경우 광택과 촉감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럭셔리한 소재로서의 사용 범위를 더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감성에 따른 페티시 소재 이미지 비교

## (1) 요인분석결과

감성에 따른 페티시 소재 이미지를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11개 평가용어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던한, 개성적인 평가용어가 각각 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들 2개 평가용어를 제외하고 최종 9개 평가용어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페티시 소재 감성에 대하여 세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66.6%이었다. 요인 1은 멋있는, 매력적인, 세련된, 고급스런 등의 평가 용어가 포함되어 시크 이미지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력은 25.2%이었다. 요인 2는 우아한, 신비스런 용어가 포함되어 신비 이미지로 명명하였고, 20.7%를 설명하였으

&lt;표 8&gt; 페티시 소재감성 요인분석 결과

요인	감성용어	부하량	고유값	설명력 (%)	신뢰도 ( $\alpha$ )
시크	고급스런	0.75	2.27	25.25	0.82
	세련된	0.74			
	매력적인	0.70			
	멋있는	0.70			
신비	우아한	0.78	1.87	20.72	0.60
	신비스런	0.68			
섹시	섹시한	0.79	1.86	20.69	0.61
	정열적인	0.70			
	화려한	0.65			
계				66.65	0.85

며, 요인 3은 섹시한, 정열적인, 화려한 용어가 포함되어 섹시 이미지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력은 20.6%이었다. 이들 각 요인의 신뢰도( $\alpha$ )는 0.60 - 0.82의 범위로 나타나서 비교적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가죽, 모피, 벨벳, 스웨이드, 코듀로이 등의 페티시 소재에 대해서 시크, 신비, 섹시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페티시 패션소재의 이미지 비교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페티시 패션소재별 이미지를 비교한 것은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페티시 소재에 따라 감성 이미지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시크한 이미지로 평가된 소재는 벨벳이었고, 그 다음은 가죽, 모피, 스웨이드의 순이었다. 가장 신비한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평가한 소재는 모피와 벨벳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웨이드소재이었다. 한편, 가장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평가된 소재는 모피와 가죽이었으며, 그 다음은 벨벳소재의 순이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학생들은 이들 페티시 소재 중에서 벨벳소재와 모피소재가 시크, 신비, 섹시 등의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벨벳, 가죽, 모피소재를 코듀로이 소재에 비해 더 품위 있고 고급스런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 페티시 패션소재의 이미지 비교

구분	가죽	모피	벨벳	스웨이드	코듀로이	F-값
시크 이미지	4.95 ab	4.79 b	4.99 a	4.54 c	3.24 d	123.5***
신비 이미지	3.85 b	4.72 a	4.75 a	4.01 b	2.79 c	141.2***
섹시 이미지	5.19 a	5.31 a	4.63 b	4.19 c	2.72 d	261.1***

\*\*\* p<.001.

abcd: Duncan 검증의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같은 집단임을 의미함.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페티시 패션소재에 대한 선호도와 감성을 조사하여 성에 따른 차이를 고찰하고 소재별 이미지를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페티시 패션소재 중에서 벨벳, 가죽, 스웨이드 소재는 선호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코듀로이와 모피 소재에 대해서는 선호하고 있지 않았다. 이들 패션소재에 대한 선호도는 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더 선호하고 있었다.

둘째, 페티시 패션소재별 감성 평가는 차이가 있어, 페티시 소재에 따라 표현되는 감성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재별 감성평가는 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셋째, 대학생들은 모피소재와 벨벳소재가 다양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벨벳, 가죽, 모피 소재를 코듀로이 소재에 비해 더 품위있고 고급스런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코듀로이를 제외한 페티시 소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느껴진다고 평가한 감성은 시크, 신비, 섹시 이미지이었으므로, 이러한 패션소재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상품기획시 소재선정을 한다면 디자인과 소재의 상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벨벳소재는 고급스러움, 섹시함 및 매력 등의 페티시한 감성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소재로 평가하고 있었고, 또한 선호하는 소재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생을 위한 고감성 가을/겨울철 재킷과 코트 등의 패션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본 연구의 목적이 이들 소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된 소재감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된 것이어서 실물을 제시하지 않고 연상되는 이미지만으로 평가하였고 또한 계절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하였는데, 이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주제어 : 페티시 패션 소재, 성, 선호도, 감성평가

참 고 문 헌

권미정 (2000) 촉각적 페티쉬 패션 소재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2(1), 63-70.  
 김정규, 박정희 (2001) 패션소재기획. 교문사.  
 김정화, 이선영, 이정순 (2007) 니트웨어 소재의 감성 및 선호도. 한국섬유공학학회지, 44(6), 339-348.  
 김희숙 (2001). 대학생의 의복소재 선호도에 태와 감성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9(4), 629-638.  
 나영주, 권오경 (2000) 여성복 텍스타일 디자인의 특성과 감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3), 198-204.  
 변미연, 이언영, 이인성 (2006)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의 페

- 티시즘에 관한 패러다임.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1063-1071.
- 신혜원, 이정순 (2002) 의류 소재의 이미지 평가 차원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1), 1638-1648.
- 오윤정, 이영선 (2004)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가족의류 평가기준. *한국의류학회지*, 28(3/4), 433-443.
- 오혜순 (2000) 의복재질의 감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경, 한명숙 (1999) 블랙 페티시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2), 323-333.
- 이순임, 김재숙(2006) 모시 소재의 문양에 따른 감성 이미지 평가, *복식문화연구*, 14(6), 1015-1026.
- 이윤숙, 신정원, 안미영, 김은애 (2001) 의류소재의 구조적 특성이 감각특성 및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8), 1408-1419.
- 이의정, 양숙희 (1999) 패션에 나타난 페티시즘 연구: 언더웨어 페티시. *한국의류학회지*, 23(2), 272-283.
- 이의정, 양숙희 (1997) 패션에 반영된 페티시즘 연구: 콜셋과 슈즈의 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237-255.
- 이정순, 신혜원 (2003) 면직물의 감성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7), 800-808.
- 정상무, 나영주 (2003) 양모의 태에 따른 최적 재킷 스타일과 감성. *한국의류학회지*, 27(1), 67-77.
- 정소영, 조규화 (1998) 벨벳(Velvet; 침모직물)의 패션 디자인 연구: 벨벳의 종류와 그 상징성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2(1), 49-56.
- Eckman, M., M. L. Damhorst and S. J. Kadolph (1990)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ng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3-22.

(2009. 1. 23 접수; 2009. 3. 23 채택)